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 백양실업
TEL . 061) 392-7900

전 남 매 일
www.jndn.com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제8303호 대표전화 (062)720-1000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건축사업 조경사업
토목사업 PARAVIEW 주택건설
삼일파라뷰

특정대 '쏠림' 심각…기관별 맞춤교육 필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어디만큼 왔니 <하>

지역의무채용 광주·전남 취업양상 변화 물꼬
대학교·학생 역량 강화 뒷받침 해결과제 산적

◇지역인재를 위한 이전기관의 정책과 사업

16개 이전기관은 저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전과 한전KDN, 전력거래소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서류·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를 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서류·면접전형에서 가산점 5점을 준다.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한전KDN 등은 지역인재 육성책을 마련했다. 한전 KPS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소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 5년 동안 본사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인근 대학과 함께 '빛가람 학점과정' 협약을 체결했고,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NCS 기반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원하는 인재로 교육시키는 방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남대와 '미래 인터넷 발전과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농어촌공사는 오픈 캠퍼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학생들의 취업 양상을 바꾸다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광주·전남 학생들의 취업준비 양상을 바꿔 놓고 있다.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고교생,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이 혁신도시 공기업으로 쏠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는 학생들이 공기업으로 눈길을 돌린게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취업 양상이 바뀌면서 대학별로 공기업 취업 대비반이 생기고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며 모의시험을 치르는 등 교육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학별로 공기업 취업 대비반이 생기고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며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각 대학은 이전기관의 특색에 맞는 에너지,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로 담당 교수를 지정해 교육·상담과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시험 대비를 돕는 등 지원 활동을 강화했고, 시중 수험서 등을 활용해 필기 교육을 하고 취업 지원센터에서는 3일(21시간)간 집중 교육도 한다. 일부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대비 필기·면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전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전남혁신형 기업 맞춤 교육'(JOBs) 프로그램에 공기업 구직 수요를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신규 채용자 가운데 24%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 대학과 학생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광주·전남에는 13개 4년제 대학을 비롯해 17개 전문대 대학 등이 있다.

2022년이 되면 이전기관들은 이들 졸업자들 중 30%를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안정적인 취업과 인재 육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으로 이어진다.

대학들도 이전기관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용자들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공기업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결과를 보면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90% 이상"이라며 "대학별로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돼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채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정대학의 독점과 쏠림 현상은 이미 예견됐다. 서류전형에서는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통과하지만 기업이 진행하는 공채 시험에서는 한 두 군데 대학 출신을 빼고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기관 취업문을 두드린 학생들의 역량과 정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대학들은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이전기관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채용 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옥 기자

■ 톡톡뉴스

민간지출, 6분기 연속 감소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수요를 뜻하는 민간지출이 6분기 연속 감소했다.

27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합(민간지출)은 341조1,5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2% 줄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더한 지표인 민간지출을 산출해 수요의 흐름을 평가한다.

민간지출은 2018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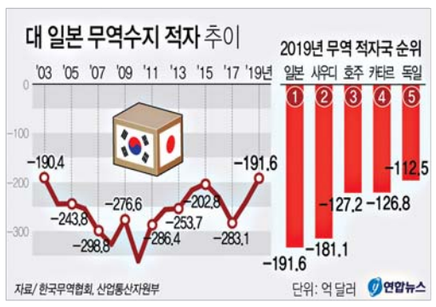
2018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던 민간지출은 2분기 들어 증가율이 0.5%로 낮아지더니 3분기에는 1.2% 감소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본격 둔화하기 시작해 기업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기업 투자가 줄고 민간소비 증가세마저 둔화해 민간지출은 지난 4분기까지 내리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0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의 소비와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더한 정부지출은 2011년 3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 넘게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1분기 4.2%에서 2분기 7.9%, 3분기와 4분기 각 9.0%로 높아졌다.

■ 그래픽 경제



일본 지난해 무역적자 17조원대

지난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문제를 한국과의 '경제전쟁'으로 확산시킨 일본이 2년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23일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치, 통관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조6,438억엔(약 17조원)의 무역적자를 쌓았다.

일본이 연간 기준으로 무역적자를 낸 것은 2018년(1조2천245억엔)에 이어 2년째로, 작년 적자폭은 전년보다 34.2% 커졌다.

작년도 일본의 수출은 5.6% 감소한 76조9,278억엔, 수입은 5.0% 줄어든 78조5,716억엔으로,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을 0.6%포인트 웃돌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김석기 본부장과 임직원들이 27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에게 전남 쌀과 햄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전남 쌀과 돼지고기 홍보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농협, 쌀·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광주송정역서 전남도·광주지역본부 참여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7일 전남도·광주지역본부와 함께 광주송정역에서 지역의 쌀과 우리돼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전남 10대 브랜드쌀인 ▲해남 한눈에반한쌀 ▲담양 대숲맑은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함평 나비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보성 녹차미인쌀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 ▲무안 황토랑쌀 ▲화순 자연속애순미 등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빛찬들쌀과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 샘플쌀 3,000여개도 선보였다. 전남농협은 우리돼지 가공품을 귀경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지역 향우님들이 우수한 전남의 브랜드쌀과 우리돼지로 만든 가공품을 직접 맛보시고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전남신보, 소상공인 종합지원 총력

6개 지점서 맞춤형 특강·멘토링 확대
경영애로 해소·자생력강화 역할 톡톡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은 전남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종합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해남 총 6개 지점을 통해 각 사업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까지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교육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세무실무, 노무관리기초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지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강'을 실시해 지역 편중 없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컨설턴트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과 성공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매장관리, 메뉴개발 등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계속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연계해 가맹사업,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임대차분쟁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분쟁조정을 지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이 믿고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